

# 1) 생애사(life story)해석에 대한 경험적 연구

이 만 영      김 수 연

고려대학교

생애사의 해석과정을 삶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 구성 및 이야기 주인공에 대한 정체추론의 과정으로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경험적으로 수집한 해석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측면, 즉 (1) 해석자의 인간이해에 대한 관점과 해석에 사용된 구성개념 간의 관계, (2) 생애사를 읽는 동안 주제파악전략의 사용 여부, (3) 생애사 주제구성의 다원성에 근거한 해석유형의 분류, 및 (4) 생애사 저자(=이야기 주인공)의 반응에 기초한 해석내용의 합의타당도, (5) 애매모호한 생애사에 대한 좌절반응에 내재된 해석자의 이해지평 탐색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연구자의 자료해석에 깔려 있는 이해지평을 반성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 1. 연구의 의의

인간의 정체(identity)를 삶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추론하려는 '이야기 접근'(narrative paradigm)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접근은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Jüttemann & Thomae, 1987; Sarbin, 1986). 예컨대, 발달심리학(Cohler, 1982; Hermans, 1992), 사회심리학(Gergen & Gergen, 1988; Gergen, 1988) 성격심리학(McAdams, 1985; 1988) 언어심리학(Britton & Pellegrini, 1990) 및 심리치료(Van-den Broek & Thurlow, 1991; Russell, 1991; Rennie, 1994)의 분야에서 연구대상에 접근하는 방법론적인 가정으로서, 나아가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가정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정보처리접근에서 인간의 정신작용을 마치 정보를 부호화하고 출력하는 컴퓨터

에 비유하는 것처럼, 이야기접근에서는 인간을 마치 하나의 이야기된 텍스트로 보려고 한다(Sarbin, 1986). 비유(metaphor)를 통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기본가정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하위이론을 유도해 내는 작업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에서 지금까지 취해 온 중요한 연구전략의 하나이다. 인간을 하나의 이야기된 텍스트에 비유하는 이야기접근의 기본가정 및 연구방법론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역사적 맥락주의(contextualism)의 두 관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삶의 의미는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의한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창출된다고 보는 구성주의 관점과, 이러한 의미는 시공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는 역사적 맥락주의를 취하고 있다(Lynda Malm, 1993; Hermans, 1992). 이러한 인식의 논리를 토대로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나 사건들을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이다. 즉, 이야기라는 틀 속에 자기경험들을 배열하여 의미있는 전체로 조직화하고, 이를 통하여 삶을 이해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뒤집어 생각하면, 삶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 속에서 인간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론적인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접근의 방법론이 내포하고 있는 바, 인간을 이해하는 문제는 이야기된 텍스트를 해석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Gergen, 1988).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사해석에 대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인간이해의 맥락에서 제기된 생애사 해석에 대한 연구는 언어로 드러난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심리적인 내면세계를 추론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론, 생애사 해석을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에는 대화장면에서와 같은 상호작용의 요소(Mertens, 1990; Gergen, 1988)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해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기에는 이미 수집된 생애사 자료의 해석은 많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제한된 글 정보를 통하여 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추론하고 전체 인간상을 재구성하는 해석과정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생애사의 구조 및 특성

생애사는 '자기이야기'(self-narrative; Hermans, 1992) 또는 '인생 이야기'(life story; McAdams, 1985)로 일컬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 및 삶에 관한 이야기를 총칭하여 생애사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이 절에서는 생애사의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언급

하고자 한다. 결국 생애사도 글의 장르에 있어서는 동화나 소설, 민담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을 전한다는 점에서 이야기 장르에 속한다. 따라서 일반 이야기의 구조적인 틀을 배경으로 그 특수형태인 자기 및 삶에 대한 이야기인 생애사의 특성이 부각되리라 본다.

### 2.1 이야기의 구조

이야기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소위 이야기문법론자(story grammarian)를 중심으로 인지심리학 및 언어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Rumelhart, 1975; Johnson & Mandler, 1980.). 이러한 연구들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지식구조(schema)를 표상하는 한 방법으로 이야기문법을 이용한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야기 표상 및 생성의 틀로서의 이야기문법이란 이야기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밝혀주는 규칙이다. 이 규칙에 의하면 이야기는 크게 도입부에 해당되는 배경설명(setting)과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한 이야기 줄거리(plot) 등으로 구성된다. 에피소드는 다시 발단사건(happening)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상황(complication) 및 그에 대한 주인공의 내적 반응(정서적 반응)과 외적 반응(문제해결행동), 결말(resolution)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 줄거리를 이루는 에피소드들 간의 관계양상에 따라 이야기의 구조적 복잡성이 달라진다(Kemper, Rash, Kynette & Suzanne, 1990). 이야기문법론자들이 보는 바, 이야기란 문제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반응 및 그 결과들이 인과적으로 조직화된 것이다.

이야기문법에 의해서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 보려 할 때 부딪치는 가장 큰 한계점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평가적 차원이 도외시되었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두 기능, 즉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알려 주는 참조기능과 일어난 일을 전하는 화자(저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명하는 평가기능 중, 이야기 문법론자들은 주로 참조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eterson & McCabe, 1983). 본 논문에서 문제 삼는 자기 삶의 이야기의 경우, 이야기된 사건이 화자(저자)에게 주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평가차원이 사건 그 자체의 전달보다 이야기의 더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평가차원을 통하여 이야기가 구조화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야기로서의 성립근거가 바로 이에 달려 있다(Labov & Waletzky, 1967; Van Dijk,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의 참조기능과 평가기능에 입각한 이야기 구조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이야기의 중첩 구조(embedded structure)는 그림1과 같이 요약된다.

2.2 생애사의 구조적 특징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로서 엮어 나갈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첫번째 특징은, 이

이야기된 삶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과적인 설명과 의미해석을 첨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내면세계(동기, 의지, 목표,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 속에는 이미 자기 및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서의 주관적인 해석이론이 들어 있다. 주관적인 해석이론은 사건이나 행위를 평가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지혜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며(Rehbein, 1982), 또는 이야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요한 인생사(life event)를 선택하고 삶의 흐름(life course)을 바꾸어 놓은 전환점을 구획('subjektive Gliederung', Kruse, 1987)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두번째 특징으로 시간성의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즉 생애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된 과거와 현재 경험에 의해 예기된 미래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틀 속에서 과거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예견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가 짜임새(coherence) 있게 연결된다. 나아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추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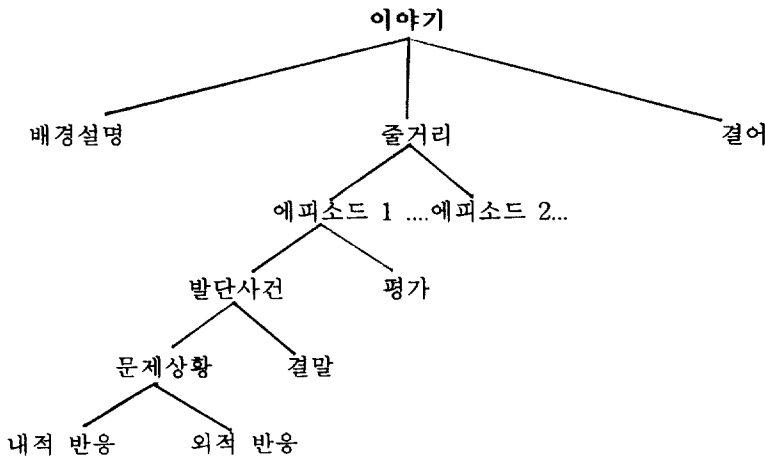


그림1. 이야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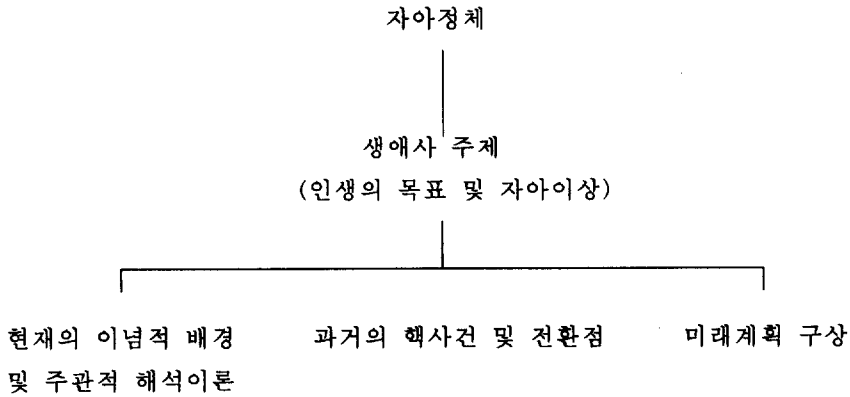


그림 2. 생애사의 주제구조

은 삶의 목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된 이야기에 어떤 방향을 부여하는 의미 단위로 작용한다. 이는 생애사의 핵심골자, 즉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

그러나, 생애사의 주제는 직접 명시되는 경우는 드물며, 추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된다. 자기이야기(self-narrative)를 중심으로 연구한 Hermans(1992)는 이야기에 드러난 감정패턴, 특히 가치판단에 얽힌 감정패턴(affect pattern)을 토대로 이야기의 주제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감정패턴의 밑바탕에는 기본동기가 깔려 있는데, 이 기본동기가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봄으로써 생애사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Hermans의 경우 인간의 자기지향성 및 타자지향성의 이원성에 기초하여, 자율-귀속, 분리-연합, 지배-사랑 등의 양극의 기본동기를 가정하고 있다. 자기지향적인 동기에 따른 감정은 자존감, 자아의 힘, 자신감, 긍지 등으로 나타나며, 타자지향적인 동기에 따른 감정은 배려, 애정, 은유, 친밀감 등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생애사에 나타난 다양한 감정들을 이러한 두 종류의 감정패턴으로 묶고, 그 밑에 깔린 기본동기의 맥락에서 생애사 주제 및 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생애사의 주제는 이야기 주인공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McAdams(1985)의 정체(identity)에 대한 생애사모델을 참조하여 보면, 이야기주제는 결국 이야기주인공의 정체구조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McAdams에 의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은, 정체구성요소들-예컨데, 이데올로기적 신념이나 가치, 대인관계에서의 역할 및 능력, 과거역사의 확인,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인생이야기(life story)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생이야기, 곧 생애사는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나타내는 이념적 배경(ideological setting), 이야기 줄거리의 정점이나 전환점이 되는 핵사건(nuclear episodes), 개인의 미래 나아가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구상(generativity scripts), 자아이상(imagoes) 등의 구성요소를 지니게 된다. 특히, 자아이상은 위에 기술한 자기지향적 동기(자율, 힘, 지배)와 타자지향적 동기(연합, 친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며, 정체를 밝히는 핵심요소가 된다고 McAdams는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자지향적 동기의 관계 속에서 파악된 생애사 주제가 어떻게 정체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밝혀지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생애사의 구조적 특징은 그 구성요소 및 주제, 나아가 자아정체와의 위계적인 관련성을 통하여 그림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3. 생애사의 해석

생애사해석이란 한 사람의 삶을 그 전체적인 의미연결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며, 직접 제시되지는 않지만 삶을 이끌어 온 기본동기를 추론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삶의 주제 흐름 및 나아가 한 사람의 정체를 파악해 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Kruse, 1987; Fisseni, 1987). 생애사 해석은 크게 기술적(descriptive) 차원과 규범적(prescriptive) 차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글이해 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해석과정의 기술적 특징을 살펴 본 후, 인간이해의 규범적 차원을 조명한 해석학의 입장에서 해석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 3.1 인지심리학적 입장: 의미해석의 과정

글이해과정에 대한 분석은, 글전체의 의미는 그 부분요소들의 기능적 결합에 의존한다는 기본전제(functionality thesis; van Dijk, 1985)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글의 전체의 의미는 문장간 연결, 문장내 단어들의 연결, 단어들의 의미에 의존한다. 이 중 명사에 해당하는 논항(argument)과 동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술부(predicate)가 결합한 명제(proposition)는 의미최소단위로서, 글 전체의 의미는 명제의 연결로 분석된다. 이러한 의미분석의 논리에 기초하여 글의 의미해석과정은 명제간의 의미연결을 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명제간 의미연결은 그들간의 인과적 관계나 기능적 관계(설명, 예시, 비교, 대조, 일반화 등) 및 정보분배관계(given-new 또는 topic-comment)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명제간의 국소적

인(local) 의미연결을 했다고 해서 글 전체의 의미구조(macrostructure) - 주제에 이를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의미론적 전환과정, 즉 일련의 의미단위(= 명제)들을 글 전체의 의미가 되는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명제(macroproposition)로 전환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이러한 전환은 일련의 주제형성을 위한 조작과정((macrooper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명제를 선택하고 일련의 명제들을 한 마디로 축약하거나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조작과정을 통하여 글 전체의 의미(주제)에 접근해 간다. 글전체의 의미를 이루는 주제명제들은 다시금 글의 장르에 따른 형식구조(superstructure)속에서 갖는 기능에 따라 범주화된다. 예컨대, 논설문의 경우 서론, 본론, 결론 등의 범주로, 이야기의 경우 배경, 발단, 갈등, 해결, 결말 등의 범주로 그 기능이 분류되어 조직화된다. 따라서 글이해의 결과 기억 속에 남는 내용은 주제를 중심으로 위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글의 이해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이론이 생애사 해석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주제명제로 전환시키는 조작과정 중 특히 일반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반화란 다양한 의미들 가운데 들어 있는 공통의 의미를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상위개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의 유입으로 인한 의미전환을 겪게 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 해석은 요약을 넘어서며 일종의 평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화의 한 형태로서의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인지적 조건은 당연히 그러한 포괄적인 구성개념(construct)을 해석자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나아가 해석자에 따른 구성개념의 차이 및 구성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의 차이에 따라 해석내용 및 의미연결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애사 글 자체의 주제수준에서의 모호성 - 이는 아마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자의 정체수준에 의존할 것으로 가정되나 (김수연, 1993) -

역시 해석자에게 다양한 상위개념이나 이론을 떠오르게 할 것이며, 그 결과 상이한 해석을 유도할 것이다. 해석자 요인 (예컨대 지식, 동기, 목적, 의지, 관심 ) 및 맥락요인 (예컨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관계) 등에 의한 해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글의 의미론에 입각하여 해석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예컨대, van Dijk, 1985)은 객관적으로 명시된 글의 최소의 미단위에 기초한 글전체의미는 해석자간 유사한 주제명제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해석자요인을 감안할 때, 타당하고 의미 있는 해석을 위하여 해석자의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 3.2 해석학적 입장: 해석자의 바람직한 태도

해석학(hermeneutics)은 17세기 성서나 고전문헌의 해석이론으로서 탄생하였으나, Schleiermacher(1768-1834)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화를 비롯한 일반 언어이해의 과정 및 조건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Palmer, 1969), 현대해석학은 인문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서 또는 진리에 이르는 모든 학문적 방법론의 기초로서, 나아가 학문적 활동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학문으로까지 전개되었다(Woolfolk, Sass, & Messer, 1988). 해석학은 말하거나 쓰는 기술이 아닌, 말해진 것을 듣고 쓰여진 것을 읽는 기술을 다룬다. 듣기 또는 읽기의 기술로서의 이해는 완결된 글의 표현에서 출발하여 그 표현을 낳은 저자의 내적인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심리과정을 다시 체험하는(reliving; 'Nacherleben')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하여 해석자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낯선 내적 세계에 정서적으로 젖어들 수 있는 대화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타인의 내적 세계에 대한 이해는 어

디까지나 해석자가 인간 및 삶에 대하여 갖는 사전이해(preunderstanding)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대해석학자들의 이해의 근본에 대한 철학적 가정이다. 해석자의 사전이해는 글의 전체적 의미를 드러내는 조망틀인 이해의 지평(horizon of understanding)으로 작용한다. 이는 공감의 한계를 시사하기도 하지만, 이해란 언제나 해석자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해석학자 Hans-Georg Gadamer는 이해란 상대방의 이해지평과의 혼융(fusion of horizon; Horizontverschmelzung)을 통한 해석자의 이해지평의 수정 및 확장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이해지평의 혼융으로서의 이해는 상대방의 관점을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명료화하기까지 비판하려는 자기반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자기반성은 진정한 개방성과 경청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태도의 밑거름이 된다.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는 상담자나 치료자의 바람직한 태도인 공감의 자세에도 해당한다. 이는 예컨대, 상담자가 어떠한 기대도 미리 형성하지 않고, 상담자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직 내담자가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매 회기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hessick, 1990). 그러나, 공감적 경청에 의해서 내담자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해석단계는 다시 - 해석학적 순환의 원리에 의해- 상담자의 사전이해(예: 성격이론 및 상담이론)의 틀에 힘입어 조직화되고,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해석단계로 나아가게 된다(Berger, 1989; Bouchard & Guerette, 1991). 수동적 해석에서 적극적 해석까지의 추이과정에 대한 Berger(1989)의 이해의 3 단계론에 의하면, 제1 단계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공감적 이해의 단계이다. 그러나,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내담자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빠져 있으며, 서

로 모순되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하여 제 1 단계의 판단보류적인 태도를 버리고, 비판적인 태도로 대안적 가설을 떠올리면서 숨겨진 의미를 다각적으로 탐색하는 제 2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제 3의 이해단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로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지금-여기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위 전이 및 역전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Berger가 제시한 이해의 마지막 단계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해자 자신의 몫에 대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더욱 확장된 이해지평 속에서 - 해석학적 순환의 원리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개방성과 경청이 가능하게 되는 데, 이처럼 이해의 3 단계는 순환의 원리에 의해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경험적 연구

연구의 의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애사 텍스트의 해석은 해석자가 글을 통하여 어떤 한 인간의 전체상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문제의 맥락에서 조명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을 이해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해석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인간이해에 대한 주관적 이론은 생애사를 해석하는 사전이해 내지는 이해지평으로 작용할 것이며, 암묵적인 이론(implicit theory)의 형태를 띄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끌어내어 그것을 논술(argumentation)의 구조를 지닌 이론의 형태로 명료화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하이델베르그 구조화기법'(Heidelberger Struktur-lege-Technik; Scheele & Groeben, 1988)에 의거, 반구조화된 면접법에 의해 수집된 면접내용을 피면접자와의 대화를 통한 합의(Dialog-Konsens-Methode)에 기초하여 주관

적 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코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해석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이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코자 한다. 특히,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하는, 인간이해에 깔린 가치관을 중심으로 주관적 이론의 경향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생애사를 해석하면서 일반화하거나 평가하는데 동원되는 구성개념(construct)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1 생애사 해석과정 및 해석내용 분석

생애사해석이란 한 사람의 삶을 그 전체적인 의미연결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며, 직접 제시되지는 않지만 삶을 이끌어 온 기본동기를 추론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삶의 주제 흐름 및 나아가 한 사람의 정체를 파악해 내는 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내기까지 생애사 텍스트를 한줄 한줄 읽어 나가면서 해석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특히 언어적 반응은 어떤 범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중 일반화나 평가의 형태로 생애사 저자의 정체를 추론하는 해석내용은 해석자마다 어떻게 달리 나타날까?

해석과정 분석: 읽는 동안의 주제파악전략

글의 전체흐름, 즉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macrostrategy)이 사용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글의 각 부분이 글의 전체구조 상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그 부분을 언급하는 빈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글 전체 흐름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미단위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한 마디로 축약하거나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화 또는 평가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생애사의 주제, 나아가 저자의 정체구조에 접근해 가는 해석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석내용 분석: 해석유형 분류

해석의 공감수준, 적극성 및 다원성에 따라 생애사 해석내용을 여러가지 이해지평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이해지평의 유형에 따라 생애사 저자들의 반응(4.2 해석내용의 합의타당도 참조)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포괄적인 상위개념, 곧 구성개념(예: 성격특성이나 이론적 개념 등)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재조명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미연결관계가 새롭게 창출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때 해석의 인지적 조건이 되는 포괄적인 구성개념이 해석자에 따라 어떻게 달리 동원되며, 그에 따라 해석내용 및 의미연결의 응집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 4.2 해석내용에 대한 합의타당도(consensual validation): 생애사 저자의 반응

생애사의 주인공인 저자들이 해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저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해석의 합의타당도를 구해 보고자 한다. 합의타당화란 해석의 절대적인 타당성을 묻는다고보다 행위 당사자인 저자와의 의견 일치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진리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제기된 타당도 개념이다. 해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문체에 있어서 상대성(equivalidity)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다원적 해석이 가능하며, 그중 어떤 해석이 다른 해석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해석의 요소가 되는 사건, 사건의 범위, 해석체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다원적인 맥락정보의 사용은 일원적인 경우보다, 그리고 다각적인 해석이 한 지점에 고착된 해석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행위자의 해석은 자신의 생애사에 기초한 광범위한 맥락정보를 알고 있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타인의 해석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그러나 심리과정을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이 아닌, 맥락과 언어에 의한 해석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의식수준 자체를 여러 수준으로 보면서 방어기제 및 그로 인한 왜곡과정까지를 감안할 때, 행위자의 해석을 무조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사실, 해석이란 것 자체가 부분과 전체, 주관과 객관, 내부와 외부, 저자(화자)와 독자(청자) 사이를 오가는 순환성에 힘입어 진리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표현(Gergen,1988) 일진데, 어떤 한 해석이 절대적인 타당성을 지닐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근거에서 해석의 질을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단 행위 당사자인 생애사저자에게 해석의 영향을 물어 보고자 한다. 즉, 해석내용을 정확도, 깊이, 관점의 자기중심성, 공감정도, 성장/통찰촉진정도 등에 따라 행위당사자인 저자가 직접 평가하게 해 보고자 한다.

#### 4.3 생애사텍스트 요인

텍스트 요인으로서 생애사 주제의 명료도가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사가 주제수준에서 모호할 경우, 예컨대 사건 중심의 생애사 서술로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등 내면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희박할 경우나, 또는 문장간의 의미연결이 애매한 경우, 전체 이야기를 구조화하는 맥이 흐려지게 된다(Peterson & McCabe, 1983). 이러한 경우 저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해석자의 노력은, 주제파악이 용이한 생애사 텍스트와는 달리,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5. 연구방법

#### 5.1 연구절차

생애사텍스트 수집 및 해석자 집단선정에 이어,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자의 주관적 이론



을 구성하기 위한 면접질문을 작성하였다. 면접 및 생애사해석에 대한 자료는 1994년 2월에서부터 5개월 동안 수집되었다. 한 해석자 당 두 회기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한 회기당 60분에서 1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첫 회기에는 연구자가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자의 생각을 묻는 면접이 이루어지고 난 후, 생애사 텍스트 3 부(A, B, C) 중 하나를 택하여 해석하게 하였다. 특히, '소리내어 생각하기'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내용을 기록하였다. 이 때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글의 어느 부분에서 촉발된 언어반응인지도 함께 기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1 주일 후에 갖은 두번째 회기에는 연구자가 면접내용을 요약하여 구성한 주관적이론에 대해 토의한 후 수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의 생애사 텍스트에 대한 해석작업을 수행하였다. 세 부의 생애사텍스트는 순서효과를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언어반응을 기록한 '해석어록'은 내용분석을 하여, 그 중 추론(일반화, 평가)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만을 추려 내었다. 생애사 저자는 이렇게 추려진 해석내용을 듣고(연구자가 읽어 줌) 제시된 기준에 의해 합의타당도를 평가하였다. 3명의 생애사 저자들이 자신에 대한 해석내용들(각기 A의 저자는 260 개, B의 저자는 393 개, C의 저자는 316개의 해석단위)을 약 4시간에 걸쳐 평가하였다.

## 5.2 생애사텍스트 선택

심리학개론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생애사를 쓰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단, 과제의 의미를 정제형성과 관련하여 설명한 후, 개인의 사생활권 침해를 우려해 자유선택임을 강조하였다. 약 200명의 수강생들 중 80부가 수집되었다. 80부 중에서 3인칭 소설이나 수필 또는 어느 한 시점의 일기형식으로 쓰여진 것을 제외하고, 비교적 초기아동기부터 현재까지의 전생애가 이야기의 형식으로 다루어진 것을

선택하였다. 그 중 다시 글 주제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3부가 추려졌다. 이들은 주제 중심으로 사건을 차분히 엮어 나간 글(생애사 텍스트 A)과 사건중심의 기술로 저자의 주관적인 태도나 감정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 글(생애사텍스트 B), 그리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 했으나 어딘지 문장의 연결이 순탄하지 못하고 난해하여 주제수준에서나 사건수준에서 애매모호한 글(생애사텍스트 C) 등이다.

## 5.3 생애사 해석자

생애사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간관과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의 틀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상담이나 임상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생 4명, 석사를 마치고 병원실습경력 1년 이상인 준전문가 5명,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지닌 상담 및 임상 전문가 5명 등 총 14명이 인간이해에 대한 생각('주관적 이론')을 물어 보는 면접에 응해 주었으며 3 종류의 생애사를 해석해 주었다.

## 5.4 인간이해에 대한 주관적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면접:

먼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 전제조건, 이해의 결과 및 효과, 이해하려는 의도 및 목적을 묻는 질문을 기본틀로 하여 대답의 내용을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이 추가로 던져졌다. 특히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항은 질문을 통하여 직면시킴으로써 생각을 정교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모순을 직면시키는 질문은 피면접자에게는 자칫 긴장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접상황의 긴장을 견디면서 연구자와 함께 주관적 이론을 재구성하는 협동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Scheele와 Groeben(1988)이 제시하고 있는 피면접자의 동기 및 인지조건에 대한 6 단계 사전확인을 실

시하였다. 즉 피면접자는 면접내용을 표상할 수 있으며 언어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동기가 있는가, 나아가 논술의 능력, 자기인식의 동기, 의미명료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등을 확인하였다. 협동작업은 2 회기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첫 회기에 수집된 면접내용을 연구자가 하이델베르그 구조화기법을 동원하여 도표로 요약, 제안한 후(부록 1 참조), 두 번째 회기에 이를 피면접자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수정하였다(부록 2 참조).

### 5.5 생애사텍스트 해석과정의 관찰:

‘소리내어 생각하기’ 기법활용 및 질문구성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목에는 밑줄을 그으라고 하였다. 아울러, 해석자의 머리 속에서 지나가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이든지 소리내어 말하도록 하였다. 소위 “소리내어 생각하기”(thinking aloud) 기법을 이용하여 해석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생애사텍스트의 해석은 상기한 ‘소리내어 생각하기’ 기법 이외에, 글을 읽고 난 후의 질문을 통하여서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소감이 어떤지, 어느 대목에 공감이 가는지,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저자에게 뭘 묻고 싶은지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던졌다. 그리하여, 읽고 난 후의 총체적인 해석을 촉구하였다.

### 5.6 생애사 해석내용: 내용분석

생애사 해석내용의 분석은 먼저, 생애사를 읽는 동안에 나타난 모든 언어반응 및 읽고 난 후의 소감 등을 기록한 전체해석어록의 내용분류에서부터 출발했다. 해석어록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5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1. 반영: 글에 나타난 어떤 특정 어휘나 구절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강조하는 어조로

### 반복하는 내용

2. 의역: 의미 명료화나 요약용 목표로, 저자가 의도하는 바와 의미상 동등하게 해석자 나름의 용어로 다시 표현한 내용. (예: “목욕..죽음에 대한 준비” -> 떨어지면 죽겠다고 생각한 거 같다.)

3. 해석자의 자기표현: 해석자가 자신의 삶이나 성격과 관련시킨 내용. 또는 해석자 자신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태도를 표현한 내용. (예: “학교에 언니가 데려다주고” -> 내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었는데; 감정절제하는게 나랑 비슷하다; 뭐가 뭔지 어려운 얘기를 쓰고 있다. 답답하다.)

4. 의문: 글의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모순된 경우, 또는 정보탐색을 목표로 한 내용. (예: “너무 순진”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갑자기 왜 친구문제가 나올까?)

5. 추론: 글에 표현된 것을 넘어서서 저자의 내면세계를 헤아리거나 그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내용. 의역의 경우 새로운 차원의 정보추가 없는 반면, 추론은 상위개념을 동원한 일반화된 진술의 형태를 띤다. (예: “통곡을 두손으로 막으며” ->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남자가된다는 것..점차꿈을 잃어 가는 거 같다” -> identity를 찾으려하는 거 같다.)

추론은 다시 그 내용에 따라 4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 개인의 능력, 성별, 전공, 취미, 건강상태 등에 대한 추론
- 개인의 이력에 대한 추론(예: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나보다)
- 개인의 인적, 물리적 주변환경에 대한 추론(예: 주변의 보살핌이 없었나)

- 주관적 내면세계(성격특성, 감정, 욕구, 동기, 갈등, 태도 등)에 대한 추론

해석어록에 기록된 총 1874 개의 해석단위 (=단숨에 연속적으로 발화된 내용)들을 이상의 범주로 분류한 후, 이들 중 추론의 범주에 속하는 해석단위들만을 두 회에 걸친 검토 끝에 추렸다. 추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된 해석단위들은 총 969 개에 이르렀다(이 중 각 생애사 텍스트에 대한 해석단위는 A는 260 개, B는 393개, C는 316개에 해당된다). 추론범주의 해석내용들을 다시 그 하위범주로 분류하기 전에, 그것들의 합의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행위당사자인 저자들에게 다음의 각 5 가지 차원 별로 -5점에서 +5점의 10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생애사텍스트 해석 당시에 해석자는 자신의 해석이 저자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만약 이를 미리 알았다면,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보고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해석자는 저자가 자신의 해석내용을 다시 들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발언했으므로, 저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은 후 평가하게 하였다.):

1. 해석의 정확도  
(전혀 맞지 않는다 - 정확히 들어맞는다)
2. 해석의 깊이  
(피상적이다 - 깊어 꿰뚫고 있다)
3. 관점  
(자기중심적이다  
- 나의 관점을 수용한 폭넓은 관점이다)
4. 공감정도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5. 성장촉진정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 매우 촉진적이다)  
추론범주에 속하는 해석내용은 다시 4 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어, 이 중 주관적인 내면세계

에 대한 추론범주에 속하는 해석내용을 추렸다. 특히, 내면세계를 추론하는 특징에 기초하여 해석내용을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각 해석유형에 따른 저자의 반응경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해석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주관적 내면세계의 추론정도 및 추론에 동원된 구성개념을 중심으로한 해석체계의 명료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추론정도 및 해석체계의 명료도에 의거해 해석유형을 크게 소극적 해석형과 적극적 해석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두가지 유목에 속하지 않는 해석형으로 주관적 해석형을 추가하였다. 이 주관적 해석형은 주관적 인상에 치우쳐 저자를 일관되게 평가절하하거나 매료당하는 해석을 포함한다.

## 6. 연구결과

### 6.1 '인간이해'에 대한 주관적 이론

14명의 해석자들로부터 반구조화된 면접에 의하여 수집된 어록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주관적 이론을 구성하였다. 인간이해에 대한 주관적 이론의 틀은 먼저 인간이해의 전제조건, 정의, 선행조건, 후속결과, 의도나 목적 등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이론의 구성방법은 면접어록 중에서 각 범주에 해당하는 사고내용을 집약하고 있는 개념을 추리고 이 개념들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개념 및 개념간의 관계를 도표로 요약, 구성하여 해석자에게 제안하였다(부록 1). 해석자는 사고내용을 집약하고 있는 개념이 적절한지 또는 개념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 있는지 검토하였다.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충분한 토의를 거쳐 연구자가 구성한 주관적 이론을 수정하였다(부록 2).

이렇게 하여 재구성된 인간이해에 대한 주관적 이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객관적인(학문적인) 이론으로서의 자격요건인, 예컨대 논리적 응집성, 개념의 명

료성, 인과관계의 설명력 등을 물을 수도 있다 (Groeben, Wahl, Schlee & Scheele, 198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즉, 각 해석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이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하는, 인간이해에 깔린 가치관을 중심으로 주관적 이론을 다음 3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대인관계의 편안함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향한 실용주의적 관점, 둘째, 자기이해나 자기성장을 목표로 하는 자아실현적 관점, 셋째 심리적 편안함, 자기성장, 타인성장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 관점 등이다. 14명 해석자의 주관적 이론 중에서 6 명은 실용적 관점을, 4 명은 자아실현의 관점을, 나머지 4명은 포괄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각 관점을 대표하는 주관적 이론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실용주의적 관점의 주관적 이론들:

##### 해석자 1.

인간이해란, 자기이해나 대상에 대한 관심 또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상대의 단점을 수용하거나 마음(행동이나 감정의 원인 또는 의도)을 아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타적 사람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이해자의 예민함과 불안정함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인간이해의 결과는 이해자 자신의 기쁨이나 편안함이며 이는 다시 원활한 대인관계를 낳는다.

##### 해석자 2.

인간이해란, 중요한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이해가 상충하는 관계를 전제로, 상대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이유를 알고,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대의 자라는 환경과 현재의 상황을 아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이해의 결과는 통제감과 친밀감을 낳으며 목적으로서의 대화(서로 받아 주고 함께 살 수 있음)를 가능케 하거나, 또는 호기심을 충족시킴으로써 이해자에게 기쁨을 준다.

##### 해석자 3.

인간이해란, 자연적 조건(시간의 흐름 또는 같이 있음)이나 적극적 노력의 조건(내 생활과의 관련

성 또는 관계의 긴장과 불편)을 전제로, 행동의 패턴(예: 난처해하거나 민감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매여 있는 원하는/피하는 자기상을 추론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인간이해의 결과이자 의도하는 바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인간관계(나의 이익, 충돌회피, 나에게 편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단, 인간이해에 상대방수용과 성격상 꾸준함이 첨가된다면, 상대방의 심리적 불편을 덜어 준다.

##### 해석자 4.

인간이해란, 같이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찾고 싶고 나의 감정을 정당화시키려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내가 힘들어 저서 자기변화가 요구될 때, 상대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전제로, 상대의 생각과 느낌 및 생활방식을 아는 것이다. 이는 내면의 생각과 실제행동 간의 관계를 나뉘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음으로써 드러난다. 이러한 이해의 결과로, 상대를 뒤집는 것이 아닌, 생긴 대로 살게 내버려두게 되며, 상대의 다양함을 수용하게 되어 쉽게 실망하지 않고 단점에 허용적이 되며 나의 심리적 편안함이 초래된다. 또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를 홍보하거나 경쟁하는 일이 줄어든다. 이 모든 이해과정은 결국 인간관계의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대처방식을 바꾸는 등의 자기변화를 피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 자아실현적 관점의 주관적 이론들:

##### 해석자 5.

인간이해란 더불어 사는 삶을 전제로, 참조체제로서의 타인의 가치관과 생각 및 태도를 파악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인이해는 타인의 입장에 서거나 자신의 선입관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해의 결과, 이해 받는 상대의 행복감이 증대되고 남과 자신의 차이/공통점을 발견함으로써 자기이해를 증진시킨다. 자기이해는 새로운 시각이나 넓은 안목의 획득, 느낌의 깊이를 깊게 하는 등의 삶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이러한 이해과정은 결국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발견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 해석자 6.

인간이해란, 개체의 서로 다름을 자각하는 것과 긍정적 인간관(= 인간이란 최선을 다하는 존재, 성장하려고 애쓰는 존재, 한마디로 평가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을 전제로, 성장 및 좌절의 역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감하는 것(=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과 상대의 세계관 파악)과 성장배경(= 성장을 촉진 및 방해하는 힘의 내용/정도 파악, 인간관계파악, 성장의 힘의 표현방법

파악)을 아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이러한 이해의 결과, 성장촉진요소가 파악되어 자기성장에 기여하거나, 친밀감, 포용, 배려, 융통성, 측은지심을 낳는다. 이러한 이해과정은 결국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발견하고, 자기이해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특히 인간본질파악은 든든함, 지혜, 자비의 원천이다.

해석자 7.

인간이해란, 감정을 느끼는 과정의 동일성과 인간의 관계본능을 전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이용하려는 동기가 없어야 하며 따뜻한 마음과 대화가 선행조건이다. 이러한 인간이해에는 이해 대상에 몰두함으로써 오는 주관적인 sympathy와 나의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거나 이해대상의 개인 상황을 압으로써 오는 객관적인 empathy의 두 종류가 있다. 이러한 empathy는 이해자 및 이해대상 모두의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나의 삶의 변화는 풍요로움이나 뿌듯함 또는 행복감을 준다.

포괄적 관점의 주관적 이론들:

해석자 8.

인간이해란, 갈등상황에서의 오해발생시 의사표현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사랑과 관심)을 전제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이다. 이는 다시 상대의 내면세계(성격, 기호, 행동패턴, 생각)를 아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인간이해의 결과는 인정받기 위한 행동을 감소시켜 자연스러운 행동을 낳는다. 단, 언제나 모든 면을 이해하고 이해받고자 하는 욕망만을 버린다면, 서로 편해지는 결과를 낳고, 이는 다시 이해받는 상대의 올바른 삶(삶 및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좌절을 버티는 힘)을 도와준다.

해석자 9.

인간이해란, 어떤 제한된 틀에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람에 대한 포괄적인 상(생각, 느낌, 생활양식, 개인적 사건을 중심으로)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함께 만나는 시간과 공유하는 경험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이해의 결과 첫째, 상대의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둘째, 오히려 편견이 감소하고 포용력이 증가함으로써 자기이해가 깊어진다. 셋째, 인간의 보편성을 확인함으로써 지적인 만족이나 자기팽창감(뭔가 된 거 같은 느낌)을 맞는다.

이상과 같이, 인간이해에 깔린 가치관을 중

심으로 분류한 주관적 이론의 관점에 따라, 생애사를 해석하면서 저자의 행위를 일반화하거나 평가하는데 동원되는 구성개념(construct)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대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용적 관점과 자아실현적 관점을 비교하였다. 실용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해석자 3 과 4, 그리고 자아실현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해석자 6과 7의 생애사텍스트 A를 해석하는데 동원된 구성개념을 먼저 열거하고자 한다. 구성개념은 해석자의 공감반응보다도 일반화나 평가 반응에서 추려졌다.

위의 네 해석자들의 경우, 인간이해에 대한 주관적 이론내용과 생애사 해석에 사용된 구성개념 사이에 상용성이 엇보인다. 즉, 실용적 관점의 주관적 이론에서의 핵심가치인 심리적 편안함은 해석에 동원된 긴장도나 감정절제 등의 구성개념과 상용하고 있으며, 자아실현적 관점의 핵심가치인 삶의 지혜, 사랑, 풍요로움 등은 그대로 해석의 구성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아실현적 관점의 성장주제는 청년기의 결단이나 정체 등의 구성개념과 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기 예시된 해석자 이외의 나머지 해석자들 중에는, 인간이해의 주관적 이론과 생애사 해석에 사용된 구성개념 사이에 뚜렷한 상용관계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제 막 전문적 훈련을 시작한 초보자(novice;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생애사해석에 사용된 구성개념의 빈곤을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주관적 이론의 관점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활성화된 구성개념의 빈곤으로 평가나 일반화의 형태를 띄지 않은 소극적 해석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주관적인 인상을 토대로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6.2 생애사 해석내용의 분석 참조).

6.2 생애사 해석 과정 및 내용의 분석

6.2.1 생애사 해석과정: 주제파악전략

생애사를 읽으면서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표 1. 인간 이해의 주관적 이론별 상애사 해석에 동원된 구성개념

실용적 관점	자아실현적 관점
<p>해석자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생사의 중요도 평가</li> <li>- 언어표현상의 자기모순</li> <li>- 생활 속에서의 긴장수준</li> <li>- 성취노력</li> <li>- 자기주장정도</li> <li>- 자신감</li> </ul> <p>해석자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절제 및 자기통제수준</li> <li>- 심리적 갈등정도</li> <li>- 심리적 일방성으로 인한 장점의 단점화</li> <li>- 인간관계의 깊이(공감, 배려정도)</li> <li>- 정서적 성숙도</li> <li>- 자기개방정도</li> <li>- 자기표현에 묻어 있는 감정가</li> <li>- 사고의 합리성 및 융통성</li> <li>- 목표달성의 힘</li> </ul>	<p>해석자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수용</li> <li>- 역경극복</li> <li>-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li> <li>- 삶의 지혜와 힘과 열심</li> <li>- 자가치유능력</li> <li>- 자가결정(자율성)</li> <li>- 자기신뢰</li> <li>- 정서표현정도</li> <li>- 인생에 대한 책임감</li> </ul> <p>해석자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아온 삶의 생생함 정도</li> <li>- 공감을 주는 능력</li> <li>- 근면성 시기의 열등감 정도</li> <li>- 집안분위기 및 가족역동</li> <li>- 사회적 지지정도</li> <li>- commitment와 청년기 identity문제</li> <li>- 결단과 성장의 계기</li> <li>-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사랑에서 오는 풍요로운 삶</li> <li>- 목표생성의 근원(intrinsic)</li> <li>- 자율 및 독립 의지</li> <li>- 의존이나 친밀에 대한 두려움</li> <li>- 청년기 삶의 바람직한 태도</li> </ul>

위한 전략(macrostrategy)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글을 문장이나 절로 분해하였다. 문장이나 절들을 글 전체 주제와의 관련성에 의거해서 그 중요도를 평가한 후, 중요도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분류하였다(부록 3과 4 참조). 먼저, 제 1 수준의 중요도를 지니는 문장이나 절들은 현재의 이념적 배경, 과거의 행사건이나 전환점, 미래계획 등의 생애사의 주제를 이루는 내용들이다. 제 2 수준으로는 과거 행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루는 배경, 발단, 결말을 나타내는 문장/절을 채택하였다. 그 외 문장/절 사이의 기능적 관

계(예: 부가적 수식, 부연설명, 예증 등) 및 정보의 참신성(이미 알려진 정보나 새로운 정보인가)에 의해 중요도수준의 차이를 두었다. 제 3 수준 및 제 4 수준의 문장/절들은 주로 1 수준이나 2 수준의 문장/절을 부연설명하거나 수식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네 수준의 분류방식은 생애사텍스트 A의 분석에만 적용하였으며, 텍스트 B의 경우에는 1,2 수준과 3,4 수준을 묶어 오직 2 수준으로만 나누었다. 텍스트 C의 경우, 문법 상의 오류 및 의미맥락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장간의 위계구조를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표 2. 생애사텍스트 A에 있어서 각 문장/절의 구조적 중요도 수준 별  
평균언급빈도 및 표준편차, 중요도수준간 평균의 차이

중요도수준	문장/절의 수(N)	평균	표준편차	수준간 평균차	T	P
1	37	8.0	2.9	1 - 2	2.09	0.04
2	27	6.6	2.4	2 - 3	4.79	0.00
3	24	3.7	1.9	3 - 4	3.98	0.0002
4	50	1.8	1.8			

없었다. 따라서, 주제파악전략의 사용여부는 생애사 텍스트 A와 B를 읽는 조건에서만 검증되었다.

주제파악 전략의 사용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애사 텍스트 A의 경우 중요도에 의해 4수준으로 위계화된 글의 각 부분들이 14명의 해석자들 사이에서 단순한 읽기 이외의 방식으로 특별히 언급되는(밑줄을 긋는 경우도 포함) 빈도를 기록하였다. 각 수준에 따른 언급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생애사텍스트 B의 경우에는 문장이나 절의 중요도 수준을 주제구조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만 나누었다. 주제를 이

루는 중요한 부분(텍스트 A의 경우 1, 2 수준)과 이를 수식하거나 부연설명하는 덜 중요한 부분(텍스트 A의 경우 3, 4 수준)에 대한 언급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두 평균의 차에 대한 의미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생애사텍스트 A와 B를 읽는 동안 문장이나 절이 글의 전체구조 상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그 부분을 언급하는 빈도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글을 읽는 동안 나타난 글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민감성은 주제파악전략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글 전체 흐름에 중요할 것으로

표 3. 생애사텍스트 B에 있어서 각 문장/절의 구조적 중요도 수준 별  
평균언급빈도 및 표준편차, 수준간 평균의 차이

중요도수준	문장/절의 수(N)	평균	표준편차	수준간 평균차	T	P
1: 중요	75	6.1	2.8	1 - 2	6.8	0.00
2: 덜 중요	89	3.2	2.6			

예상되는 의미단위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한 마디로 축약하거나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화 또는 평가함으로써 글의 주제, 나아가 저자의 정체구조에 접근해 가는 해석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5.6 생애사 해석 내용분석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해석어록 중에서 주관적 내면세계에 대한 추론 범주로 분류된 해석단위들을 소극적 해석형과 적극적 해석형으로 분류한 결과 소극적 해석형은 글에 명시된 의미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좁은 범위에서 추론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적극적 해석형은 구성개념을 동원하여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서 새로운 의미연결 관계를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해석체계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소극적 해석형은, 생애사텍스트 A의 경우, 글간의 함축된 의미를 헤아리며 저자의 감정을 읽어 주느냐에 따라 다시 공감형과 비공감형으로 나누었다. 생애사텍스트 B의 경우, 문체나 언어표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저자의 내면세계를 추론한 해석사례를 소극적 해석형으로 예시하였다. 어떤 생애사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체해석경향이 다소 달라지며 (6.2.3 생애사 텍스트요인 참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대표치들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한 관계로, 하위분류체계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서 강한 추론을 시도하고 있는 적극적 해석형은 해석체계의 다양성 및 융통성에 근거하여 다시 제한적인 일원적 해석형과 포괄적인 다원적 해석형으로 분류하였다. 일원적인 해석형은 하나의 해석 축을 중심으로 생애사의 내용을 제한된 영역으로 축소시키면서 핵심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다원적 해석형은 다양한 해석의 축을 교차시키면서 기술된 사건들의 의미를 폭넓게 조망함으로써 저자의 내적인 삶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그려보려는 시도를 보인다.

생애사 텍스트 A의 경우, 일원적 해석형으로는 그 해석의 축이 되는 핵심주제의 차이에 따른 저자의 반응차이를 보여 주기 위하여 두

종류의 해석사례(예: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해석 vs. 감정절제를 중심으로 한 해석)를 제시하였다. 생애사텍스트 B의 경우, 일원적 해석형은 해석의 축이 되는 핵심주제의 차이에 따른 해석의 응집력 차이를 예시하기 위하여, 단편적인 해석과 응집력있는 해석으로 분류하여 제시였다. 포괄적인 다원적 해석형은 생애사텍스트 A의 해석사례 중에서만 예시하였다(생애사텍스트 B의 해석사례 중에서는 해당되는 유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기술한 해석유형과 주관적 해석형을 대표하는 해석사례를 생애사 텍스트 A와 B로 각각 나누어 예시하였으며, 각 해석단위에 대한 저자의 5 차원에 걸친 평가도 함께 제시하였다. 해석단위의 맨 마지막 줄에 있는 해석어록의 전체평가는 문자 그대로, 해석자가 생애사를 읽는 동안 및 읽고 난 후 행한 모든 언어반응에 대한 평가를 가리킨다. (예시된 해석내용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부록 3과 부록4에 실린 생애사 주제구조를 참조하기 바람)

#### 생애사텍스트 A에 대한 해석내용      저자의 평가차원

##### 주관적 해석형 (부정적 해석):

1 2 3 4 5

- 대학병원이름 밝힌 것보다 환경에 대한 자량이 있는 것 같다.	1	1	1	0	2
- 글 쓴 사람이 자기 우울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같다.	2	1	1	1	3
- 한으로 남은게 죄의식인 것 같다.	0	0	-1	-1	3
-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	3	2	2	2	3
- 우월의식이 있는 것 같다.	4	3	3	2	4
- 미신적인 것 같다. 약하고 불안하니까.	4	2	2	1	3
-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	4	2	1	1	4
- 타인의 나쁜 점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것 같다.	0	0	-1	-2	3
- 경직돼 있고 잘나보이고자 하는 면이 있다.	2	0	0	-1	3
- 자기성실함을 내세우는 것 같다.	3	1	1	0	3
- 자기의 가치관으로 볼 때 자신의 행동이 절대 그릇되지 않다고 믿는다는 중립적 톤으로 말하지만 나만의 가치관이 옳다고 말하는 것 같다.	0	0	0	-1	2
- 너무 종교적인 면이 자신을 묶어 놓는 것 같다.	3	2	1	0	2
-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서 이 사람 스스로가 경쟁적인 것 같다.	3	3	2	1	4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3 1 0 -1 3

**소극적 해석형: 비공감형**

	1	2	3	4	5
-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이겠다.	3	3	2	1	2
- 엄마가 잘 못 들봐주었겠다.	3	3	2	1	3
- 아버지에 대해 이상화시키나 보다.	2	2	2	2	3
- 슬픈 일인데 멋있게 썼나 싶었는데, 아버지하고만 친한 것 같다.	1	1	1	0	4
- 귀엽게 자란 무용하는 사람이 보수적이라는 게 안 맞는 것 같다.					
- 재수하면서 변한 것 같다.	2	2	1	2	3
- "그저 잘 흘러 가기를 바랄 뿐"이란 걸 보면 낙관적인 것 같은데, "투쟁"이라니 잘 안 맞는다.	2	1	2	2	3
-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 같다.	1	0	1	0	3
- 아무지도 각쟁이 같은 사람일 것 같다.	4	3	3	1	3
- 대인관계에서 타인배려나 깊은 인간관계를 못 맺을 것 같다.	0	0	-1	-2	4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2	1	0	0	3

**소극적 해석형: 공감형**

	1	2	3	4	5
- "어머니 타계"가 눈에 들어 온다.					
- 굉장한 영향을 미쳤겠다.	3	3	2	3	3
- 조금은 후회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쓴 것 같다.	3	3	3	3	2
- 7살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충격적이었겠다.	3	3	3	3	2
- 어머니 부재가 핸디캡이 되었겠다.	1	1	0	0	3
- 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죽 갖고 있구나 보다.	4	4	3	4	4
- 뭔가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감정을 탁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	4	4	3	4	3
- 좋은 학교에 들어 가자는 가치관이 있나 보다.	3	2	1	0	3
- 대학에 떨어진 게 self-esteem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다.	2	2	1	0	3
- 재수생활도 불안한 생활이었겠다.	3	3	3	3	4
- 대인관계는 원만하게 맺고 있는거 같다.					
- 위로받고 그걸 힘으로 느끼는 걸보니.	3	3	3	4	4
- 자신감이나 우월감을 느끼며 외롭다는 생각을 가졌겠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견뎌낸 것 같다.	4	4	4	4	4
- 어려운 시절을 같이 한 친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 같다.	4	4	4	5	4
- 정이 많은 아이인데, 휩쓸리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친구 때문이 아닐까.	4	4	4	5	5
- 감정억제를 많이 하는 것 같다.	3	3	3	1	3
- 성취지향적이고, 꿈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며 사는 것 같다.	4	3	2	1	4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4	3	3	4	4

**적극적 해석형: 일원적 해석**

1 2 3 4 5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석의 축이 된 경우:

- 이 사람의 유약함을 아버지가 다 상쇄시켜 준 것 같다.	3	3	2	0	4
- 어머니존재가 작게 느껴지고, 아버지 존재로 살아 왔나 보다.	3	3	2	0	3
- 무용을 통해 관심과 칭찬을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용부에 들어갔나 보다.	3	3	3	1	3
- 관계욕구가 많은데도, 아무지계 재수 생활한 것이 이 사람의 힘인 것 같다. 아버지의 사랑이 neurotic해지기보다 힘이 되었겠다.	4	3	3	3	4
- 대학이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는 통로인 것 같다.	3	2	1	0	4
- "이성에 대한 결벽증"이 있다. 아버지와 친하고 그게 편하다면 이성친구와 친하기 쉬웠을텐데.	3	1	1	0	4
- 모든 걸 제치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그래도 몰입해서 할 수 있는 힘은 아버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것 같다.	3	2	2	0	3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3	2	1	0	4

감정억제가 해석의 축이 된 경우:

- 자기가 원하는 건 언쟁해도 얻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다.	4	3	2	2	3
- 왜 담당할까? 감정적인 게 드러나야 될 때 그런 것 같다.	3	3	2	1	3
- 감정이 없는 것에 대해 주관은 있는 것 같다.	4	3	3	3	4
- 자제력이 강하고 감정콘트를 잘하고.	4	3	3	3	4
- 이렇게 강한 사람이 왜 담당했는지. 감정이 없는게 아니고 억누르는게 습관화된 것 같다.	4	4	3	2	4
- 목표를 달성해 가는 힘은 있는 것 같다. 쉽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게 장점인 것 같다. 그런데 감정이 너무 안 나온다. 너무 피상적이고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한다.	3	3	2	2	4
- 의무감에 사로잡힌 것 같다. 지금까지는 장점으로 작용했으나 이제부터 방해가 될 것 같다.	4	3	3	3	5
- 또 감정절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걸 잘 모르나 보다.	4	4	3	3	3
- 남너불문하고 깊이있는 인간적 교류가 없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부족감도 없고, 주로 자기목표성취나 일에 대한 욕심은 많다. 앞가림 잘하고 대견하나, 공감이나 배려는 부족하겠다.	3	2	1	1	4
-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절제하는게 나랑 비슷하다. 뭔가 감당 할 수 없는 감정을 피해가며 이성적으로만 대처하는					

것 같다.	3 2 0 0 5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4 2 2 2 4

**적극적 해석형: 다원적 해석**

	1 2 3 4 5
- 열심히 생생하게 살았겠다.	4 3 3 3 2
- 일찍 학교에 입학했으니. 나랑 비슷한데, 자기조절량보다 많은 짐을 짰겠다. 열등감도 느꼈겠다.	0 0 0 1 3
- 사람들의 support 많이 받았겠다. 엄마가 입원해 있으니 집안이 전체적으로 힘들고 빈 느낌이 들었겠다.	3 3 3 3 3
- 아버지와 밀착된 느낌, 그래서 불안한 예감이 든다.	3 3 3 3 4
- 어머니와 관련된 감정에 어떤 구멍이 있지 않겠다. 그 땐 못 느껴도 커서 보면 느낄 수 있겠다. 어머니란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 존재이므로.	3 3 3 3 2
- 각광받는 무용을 하면서도 그 과정은 힘들다.	4 4 3 4 4
- 열렁동땅 했다는 걸, 그렇게 commit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	4 4 4 4 4
- "있을 수 없다"는 걸 보니 commit가 이 사람을 크게 한 것 같다.	4 4 4 4 5
- 독하게 살려고 마음먹은거다. 사람이고 뭐고 무용 외에는. 결단하고 외로운 시간을 갖는 경험에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	4 5 4 4 5
- "자존심 강한 나"라는 말을 세번이나 쓴다. 이게 뭘 뜻할까? 특권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불쌍한 사람에 공감할까.	3 3 3 3 4
- "대학=목숨"이라는 걸 봐서 아직 identity crisis를 안 겪은 것 같다. 무용을 잘하려면 이것도 필요하다.	2 2 3 3 5
- 목표가 외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다.	3 3 4 4 4
- 자기를 세우고 지켜 나가려고 애쓰는 느낌이 든다.	4 4 4 4 4
- 마음을 풀어 놓고 하는 일을 못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걸 피하는 것 같다. 긴장되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4 5 4 5 4
- 경쟁의 주제가 나오네. 현실일 수도 있지만 내적인게 투사되고 있을 수도 있다.	4 4 4 4 4
- 내부에서 외롭고 긴장풀기 힘들어 하고, 독립, 자립, 자기세계를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립-의존의 갈등이 심각하다.	4 4 4 4 5
* 해석어록의 전체 평가	4 4 3 4 4

해석유형에 따른 저자의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부정적 해석형의 경우 공감의 차원에서 다른 유형들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난다. 해

석의 근거가 너무 주변적이어서 적절치 못하거나(저자의 평가를 인용하면, "무슨 말을 했을 때 전체, 앞뒤사정엔 별로 신경 안 쓰고 나중에 말하는 거에만 신경 쓴다."), 주관적인 인상에 근거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행위당사자가 느끼는 공감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소극적 해석형 중 비공감형의 경우, 저자의 감정의 흐름을 읽어 주는데 미흡한 관계로, 해석내용간의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메울 적절한 해석체계를 동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공감형의 경우 뚜렷한 해석체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감정을 따라가며 읽어 주기 때문에, 저자가 느끼는 해석정확도나 깊이, 공감정도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 해석형의 제한된 일원적 해석형에는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해석과 감정억제를 중심으로한 해석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해석의 축이 되는 핵심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저자가 느끼는 해석자관점의 자기중심성 정도 및 공감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자가 의식하고 내어놓은 주제를 문제 삼는가, 아니면 해석자의 해석체계에서 추론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원적인 포괄적 해석형의 경우 해석주제의 다양성 및 공감의 풍성함과 깊이는 우선 해석어록을 읽는 제 3자, 예컨대 연구자로 하여금 저자의 정체를 더욱 선명히 느낄 수 있게 한다. 공감하면서도 저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해석유형은 저자인 행위당사자에게 공감을 주는 것은 물론 성장촉진의 요소를 지닌 것으로도 평가되었다.

**생애사텍스트 B에 대한 해석내용**      저자의 평가차원

**주관적 해석형 (호의적 해석)**      1 2 3 4 5

- 굉장히 솔직하다. 좋은 의미에서 반항적이다.	3 3 3 3 2
- 전반적으로 볼 때 체계적이다. 강박적이고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일 것이다.	2 4 2 0 0
- 어린애들은 개한테 놀라는 경험에 있다. 얼마나 놀랐을까. 친구가 얼마나 미웠을까.	-1 0 0 -1 0

-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어버린 것 같다.	3 3 2 0 0	-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다.	0 0 1 0 0
- 구별되는 아이들과 따로 노는 데 이 사람은 갈등을 느꼈을거다.	2 3 2 4 2	- STJ같은 느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것 같다. 권리침해나 부당한 것을 못 참는 것 같다.	2 1 0 1 0
- 서론에서 도전적인 걸 보니, 교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듯하다. 운이 없는 것 같다.	1 0 -1 1 0	- 개에게 물릴 뻔 하고, 친구는 문을 잠그고, 아버지가 구해 주었는데, 서술은 잘했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두려움을 말하는 것 같다.	1 0 -2 0 -1
- 성적에 관심이 없는 것은 냉소적이고 방향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사회의 그늘을 아주 민감한 부분에서 경험한 것 같다.	2 3 1 1 0	- 계속 성적 얘기가 나온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	1 -1 -2 0 1
- 신문은 매일 밤 보니 사고력향상에 도움이 되었겠다.	4 3 2 1 1	- 아픈 기억, 고립된 기억 뿐이고 즐거운 기억이 없다. 내세울 것은 성적 뿐이고. 사춘기 시절은 더 우울해 질 것 같다.	-2 -2 -3 0 1
- 논쟁을 좋아하고 냉소적인 게 느껴진다.		- 가난이 불편할 정도까지 사무쳐 있는 것 같다.	1 -2 -1 0 0
- 관심이 내부로 향하므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겠다.	3 3 4 2 3	- 겉으로는 명랑하나, 내적으로는 방어적이었겠다. "서론"에서처럼 남들이 자기 아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 같다.	3 2 1 1 0
-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능력은 있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쫓겨나,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사람인가 같다.	4 4 4 3 2	- 인정받는데 좌절되었을 때 힘들었겠다. 그게 가난 때문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자신에 대해 blame하는 것 같다.	-2 -1 0 1 0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4 3 2 1 2	- 담임 선생님의 폭력에 화가 난 걸까? 자기가 인정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난 것 같다.	-4 -3 -2 -1 -1

**언어표현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 해석형: 1 2 3 4 5**

- 묘사적이다. 사실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하고 있다.	2 2 3 0 0	- 관심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해 한다.	2 -1 -2 -3 1
- 사실 위주로만 쓰고 자기 기분은 하나도 얘기 안하고 있다.	1 0 2 0 0	- 힘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중요해서 성적도 중요했고, 그러나 또래관계에는 별 신경을 안쓰고.	-5 -4 -3 -2 -1
- 있었던 일을 자세히 논리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2 2 3 2 0	- "난상토론": 아주 철학적인, 사변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겠다.	2 1 1 1 2
- "맛이 좋았다": 이는 처음 나오는 감정이 다. 논리에는 체계적이나, 느끼는 데는 인색한 면이 있지 않나 싶다.	2 1 1 0 1	- "시험전날 축구시합": 내가 못 해본 경험으로 이해가 안 간다. "발목이 뺏었는데 마음이 편하다"는 게 왜 그랬는지. 긴장완화 효과가 있었는지. 교묘시절은 공부고민 없이 친구랑 잘 지낸 것 같다. 토론, 신문읽기, 축구 등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3 2 -1 -1 0
- 가난이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 같은데, 자기 감정이 중요한 텍스트A의 주인공과 달리 사건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1 0 2 2 0	- 자기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 보다.	2 2 1 3 0
- 스스로 피해 버리는 내성적 성격인 것이다.	4 3 2 1 0	- 대학에서 불만의 진정한 이유가 뭘까? 밖에서 원인을 찾는다.	0 -1 -3 -1 -0
- "네가 뭐데"라는 말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여자선생님 반에서 부장으로서의 모습과 이전의 혼자있는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4 5 1 0 1	- "이제는 와 닿지 않는다": 너무 일찍 마음의 문을 닫은 게 아닌가. 성숙한 게 아니고, 대항하다가 빨리 지쳐 버린 것 같다.	2 1 0 4 0
- "치러선생님", "행복의 근원" 등 감정에 대해 제일 많이 나온다.	5 4 3 3 0	- 내면에는 화, 불안이 많은 것 같다. 자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고 외부로 투사를 많이 한다.	0 -1 0 1 0
- 또래보다 조숙하고 고민도 빨리하고 대학 생활에도 반발하면서 자기갈등을 계속해 나가는 대학생이다.	4 3 3 3 2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1 1 -3 -2 0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3 2 2 1 2		

**적극적 해석형: 단편적인 일원적 해석 (해석의 축: 외부투사)**

- "비밀보장"을 강조하는 게 읽는 사람에게 협박하는 거 같다. 살면서의 두려움, 읽는

**적극적 해석형: 응집력있는 일원적 해석 (해석의 축: 현실 대 판타지)**

1 2 3 4 5	2 2 2 1 0
- 좀 방어하는 것 같다.	-1 0 0 0 0
- 강박적인 것 같다.	1 -2 -1 0 0
- 합리화, 이지화를 많이 쓰는 사람이겠다.	
- 똑똑한 사람 인 것 같다. 자존심있는 반	

- 항을 드러내지만, 주어진 일을 하기는 하겠다. 2 3 3 0 2
- 뭔가 이 때 (친구에 대하여) 굉장한 배반감을 느꼈겠다. 0 2 2 0 1
- 신체에 대한 게 많다. somatization? 몸이 아픈 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은 것 같다. -1 0 0 1 2
- "꿈속을 해렸고.., 아팠고.., 잤고" 이렇게 어쩌면 depression 이었는지 모르겠다. 2 2 1 2 2
- 자기는 작고 세상은 크고 성격은 바닥에 가깝고 depression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없고, 물리고, 배신당하고, 기절하고, 아프고, helpless한 것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때우고. 2 2 2 0 1
- "성격상위": 능력은 있으면서도 우울이다. 3 4 4 3 2
- "성적에 우가 하나씩 꼭 끼여 있고": 뭔가 반항적인게 느껴진다. 4 -4 -3 -2 0
- 혹 잘되는 것에 하나씩 못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닐까. -4 -4 -3 -2 0
- "집안에서는 ..내성적" 밖에서는 sociable 하다는 거다. 2 3 1 0 2
- 드디어 가난에 목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난에 원인을 돌리고, 이번에는 또 나쁜 선생님이다. -3 -3 -1 -2 -1
- "처녀선생님": 드디어 판타지가 또 생겼나 보다. 책에 몰두한 것처럼 외부대상에 투사되고 있다. -3 -2 2 2 0
- "내가 똥대"라는 말처럼 aggressor와 동일시하면서 잘난척을 하고 있었나 보다. 개가 쫓아오던 당시 친구의 입장이 된 자신이 이제 또 다른 친구를 궁지에 몰고 있다. -4 -3 -2 -2 1
- "다시 소극적이 되어 갔다": 다시 또 우울해 진 것 같다. 판타지와 현실 사이에서 어느 쪽이 강했다 부딪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 2 3 3 0 2
- 신문을 몇 시간씩 뒤적이는 것도 세상에 대한 판타지적 접촉인 것 같다. 현실과 직접 부딪히는게 아니다. 2 2 2 2 3
- "난상토론": 판타지 쪽으로, 특히 이지화로 간 것 같다. 진짜 절실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1 -1 0 1 0
- "축구경기"로 진짜 접촉이 시작된다. 중국집도 함께 가고. -4 -4 -4 -4 0
- "발목이 삐어": 몸이 병드는게 도망가는 출구다. 그러나 뭔가 안 좋다는 싸인을 보내고 있다. -5 -4 -2 1 0
- 행복했던 시절이 별로 없었겠다. 판타지를 키우던 시절 <math>\blacktriangleleft</math>. 2 1 1 0 0
- 자기의 정체를 찾기 위해 유행적인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4 4 3 2 1
- "남자가 된다는 것 꿈을 잃는 게 아닐까": 정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4 4 0 1 2
-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3 2 2 2 1
- 생애사텍스트 B를 읽은 한 해석자가 "저자

는 자신을 순수하고 진지하며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이에 대한 저자의 평가: 4 3 0 0 1)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본 바와 같이, 다소 이상화된 자기상에 들어맞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석된 내용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주관적 해석형의 경우 저자는 전체해석에 대하여, 해석자가 "자신을 투영, 비교하는 것 같다"고 평가함으로써 해석근거의 빈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상에 들어맞지 않는 해석에는 강한 저항을 보이는 것이 저자의 반응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러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방어기제를 건드리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를 건드리는 해석에는 모든 평가차원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해석이 주는 자기통찰이나 성장촉진의 요소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여러 해석자들이 글을 통하여 저자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인 "방어적"이라는 성격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2.3 생애사 텍스트 요인

텍스트 요인으로서 생애사 주제의 명료도가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생애사가 주제수준에서 모호할 경우, 예컨대 사건 중심의 생애사 서술로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 등의 내면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희박하거나, 또는 문장간의 의미연결이 애매하면, 전체 이야기를 구조화하는 맥도 아울러 흐려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저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해석자의 노력은, 주제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생애사를 해석할 때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생애사텍스트의 요인에 의한 해석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사건중심으로 기술된 생애사텍스트 B에 대한 해석양상을 주제중심의 생애사텍스트 A에 대한 해석양상과 비교하였다. 그 다음으로, 문장간의 연결 및 기술한 사건 자체가 애매모호한 생애사 텍스트 C에 대한 해석자의

반응을 토대로 해석자의 이해지평을 분류하고, 이해지평에 따른 저자의 평가반응을 살펴보았다.

생애사텍스트 B의 특징을 상술하면, 사건 중심으로 기술되어 저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감정 등이 명료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체나 묘사된 사건, 어휘 속에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내면세계를 추론해 내야 하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지닌다. 예컨대, 글 자체가 공감의 실마리를 좀체로 제공해 주지 않는 텍스트를 놓고 해석자들은 언어적 표현방식에 반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생애사텍스트 B의 경우, 언어적 표현방식에 대한 언급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었으며, 언어적 표현방식에 대한 언급빈도를 텍스트 A를 읽을 때와 비교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생애사텍스트 A와 비교해 볼 때, 텍스트 B의 경우 언어적 표현에 대한 언급빈도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난다. 언어적 표현으로 인하여

저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자의 내면세계, 특히 방어적인 태도를 추론하려고 하는 해석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생애사 텍스트의 두번째 요인으로 글 자체의 난해함에 대한 해석자의 반응 및 이에 대한 저자의 피드백을 살펴보았다. 즉, 문장간의 연결 및 사건기술 자체가 애매모호한 생애사 텍스트 C에 대한 해석자의 반응을 토대로 해석자의 이해지평을 분류하고, 이해지평에 따른 저자의 평가반응을 살펴 보았다. 생애사텍스트 C는 문법 상의 오류 및 의미맥락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장간의 위계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해석자들이 글 자체를 이해하는데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인지적 갈등과 좌절(frustration)을 불러 일으켰을 법한 상황에 대한 해석자의 반응을 통하여, 저자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차원, 곧 이해지평에

---

생애사의 언어적 표현방식에 대한 언급

---

- 이야기의 구성 (예: “사건만 나열하고 있다.”; “사건의 맥락이 안 잡힌다.”),
  - 이야기의 소재 (예: “친구, 가족, 형제, 자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문체 (예: “묘사적이다”; “그림을 보는 것같이 쓰고 있다.”)
  - 평가(high point) (예: “도대체 뭐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썼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 

표 4. 언어적 표현에 대한 언급빈도의 평균비교

생애사텍스트	해석자 (N)	평균언급빈도(표준편차)	평균차이	T	p>T
A	14	2.64 (2.62)	A - B	4.43	0.0001
B	14	7.71 (3.38)			

---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 지평은 Berger(1989)의 이해의 3 단계론을 참조하여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내용차원의 이해 지평은 저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저자의 이야기 내용에 해석의 초점을 맞춘다. 둘째, 문제탐색 차원의 이해지평은 이야기의 생략된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이야기 뒤에 가려진 저자의 핵심문제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끝으로 셋째, 관계 차원의 이해지평은 이야기를 통하여 저자와 해석자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금-여기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인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가 해석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저자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이해지평을 예시함에 있어서 각 범주를 대표하는 해석사례 중, 특히 글의 난해함과 관련된 해석내용(추론범주 및 해석자의 자기표현범주에 속하는 내용)을 추림과 동시에 각 해석에 대한 저자의 평가도 함께 제시하였다.

### 내용차원의 이해지평

- 생애를 기술하면서 자신이 예술을 택해서 어떻게 살아 왔다가 일관되게 그려져 있고, 방향과 선택의 과정에 공감이 간다. 4 5 5 5 1
- 굉장히 난해하게 살 것 같다. -1 0 2 2 0
- 추상적으로 써서 잘 모르겠는데,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4 4 2 2 4
- 이 사람의 성격은 밝거나 외향적이지는 않겠다. 2 3 4 4 2
- 글 쓴 투로 보아 사변적인 것 같다. 3 4 4 4 2
- "자신"이라는 표현에서 "나"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쓰려는 것 같다. 0 1 1 1 0
- 친구관계는 그리고 있지 않으나, 중학교 때 원만했다는 정도고, 외면적으로는 관계 없었다. 그러나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 놓는 친구는 없었다. 2 4 4 3 1
- 주로 혼자 고민하거나 자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 같다. -1 2 3 3 1
-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2 4 4 5 1

### 문제탐색차원의 이해지평

- 굉장히 현학적이고 주지화하려고 예쓰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 주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자기목표는 예술가 라는 뜻인 것 같다. 4 2 -1 3 0
- "타협과 포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리멸렬하다. 사고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대화한다면 대화가 될지. 이것만으로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겠다. 0 -3 -1 0 -3
- 서론을 보면서 오는 느낌은 막연하고 모호하다. 혼란을 겪는 게 아닌지.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같다. 0 -1 1 -1 2
- "자신"이라는 표현으로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감정개입을 회피하려고 그런것 같다. -2 3 1 0 3
-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2 1 4 -2 2

### 관계차원의 이해지평 (1)

- 어려운 얘기를 쓰고 있다. 정말하고 싶은 걸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불안감 때문에 길게 늘어 뜨린다. 3 -1 3 2 4
- 뭔지 모르지만, 많이 말했으나 한마디도 진답이 안되고 있다. 헛갈린다. fact가 없다. 자기 마음안에서 빙글빙글 돈다. 그러나 창의적인 흔적도 없다. 뭔가 맥락이 안 잡힌다. 이해해 주고 싶다고 보다 답답하다.
- 화를 불러 일으키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았을까. 좁은 지면에서도 그런데 타인을 얼마나 숨터지게 할까. 1 -1 1 2 3
- \* 해석어록의 전체평가 1 2 -3 0 4

### 관계차원의 이해지평 (2)

- 말이 안되네. 자기 혼자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다. 0 1 2 2 0
- 뿌리가 힘있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닌, 근본이 흔들리는 사람인 것 같다. 0 3 2 3 4
- 말쑥이 쳐다보고 끊임없이 분석하는 친구들이 연상된다.
- 세계가 복잡하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보고 있다. 0 4 5 3 3
- 예술이 갈등을 승화시켜 주는 거겠지. 3 4 4 5 3
- 이스트로 갓 구운 식빵 냄새가 연상된다. 따뜻한 힘이 느껴진다. 이 사람 속에서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구석이 느껴진다.
- 핵심갈등과 연결시켜 어려운 말들을 해석해 주고 번역해 주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4 2 4 2 5
- 자기세계에서 나오게 하는 transitional object의 역할을 필요로 하며, 자기나름의 세계를 현실과 맞춰 주는 작업을 요한다. 2 0 3 3 4

표현된 언어의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의도한 바를 내용차원에서 해석해 주는 것이 언어 뒤에 가려진 문제를 추론하는 해석보다는 해석자의 공감정도에 있어서 더 높게 평가되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관계차원의 이해지평을 예시하는 두 해석사례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해석자가 느끼는관계의 속성에 따라서 저자의 평가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해석사례 (1)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관계에 기초한 해석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해석사례 (2)의 경우, 긍정적인 관계요소(연상내용에서 보듯이)에 기초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치료적 관계도 시사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저자는 후자의 해석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 있으며 성장촉진적이고 공감적이라고 평가한 듯하다.

## 7. 토의 및 결어

이상의 경험적 연구과정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생애사의 저자가 자신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야기한 생애사를 이 연구에 동원된 14명의 해석자들이 재해석하고, 연구자는 이들의 해석어록을 다시 해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석자의 해석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이 절에서는 생애사 해석어록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정을 반성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인간이해에 대한 해석자의 사전이해 즉 관점에 따라 생애사해석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논리로 연구자의 사전이해(예컨데, 사전지식으로서 전공배경)가 해석어록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되짚어 보면서, 연구자의 이해지평 및 해석의 한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해석자의 바람직한 태도로서 제시했던 바를 과연 연구자 스스로 실행하였는가를 살펴 볼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비판점은 해석내용의 범주화(반영, 의역, 추론, 자기표현, 의문 등) 및 해석유형분류(소극적 해석형: 공감형, 비공감형; 적극적 해석형: 일원적 해석, 다원적 해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일방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해석자의 해석내용의 타당도를 행위당사자(=생애사 저자)의 반응을 통하여 알아본 것과는 달리,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행위당사자 (=생애사 해석자)와의 의사교환을 통한 합의타당화 과정이 생략되었다. 따라서 해석자의 해석 당시의 주관적 내면세계를 좀 더 철저히 규명하는 과정에 다소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비록 행위자와의 의사교환이 없더라도, '소리내어 생각하기' 기법에 의해 얻어진 언어반응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추론해 낼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입력(자극)과 출력(반응)의 기능적 관계를 통하여 추론하려는,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불리우는 정보처리적 접근의 연구논리가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넓게 보자면, 물리적 세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입각한 심리학이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면서도, 제 3자의 객관적 관찰에만 의존한 나머지 경험의 주관적 의미마저도 추론하려고 하는 연구방법론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omanyshyn & Whalen, 1989).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경우, 연구대상인 인간이 연구목적에 위하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열려있는 창구라는 의식(Groeben, 1986)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연구자가 해석자의 해석과정을 관찰하면서 지녔던 의문을 해석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직접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의문들이란 예컨데, 생애사 해석자는 지금-여기의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연구자와의 관계(예컨데, 연령차이, 친분정도 등)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용의 요소가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애사를 해석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지, 왜 어떤 생애사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떤 생애사는 해석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핵심주제를 그렇게 파악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생애사의 주인공에 대하여 왜 그런 느낌이 오는지 등이다. 만약 이에 대하여 해석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라면, 동일한 생애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자에 따라 생애사의 주인공이 왜 때면 각기 다른 사람으로서 연구자에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번째 비판점으로서, 생애사를 읽는 동안의 해석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해석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생애사의 주제구조를 분석하는데서 출발하여 생애사 텍스트를 그 요소들(단락, 문장, 절)로 분해하고, 이들을 주제관련성에 의해 위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요소의 위계수준에 따른 언급빈도의 차이에 근거하여 생애사 해석과정이 주제구성의 과정임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생애사해석과정은 주제파악과정이라고 하는 '일반화된 법칙을 세우는'(nomothetic) 작업을 수행했을 뿐, 주제파악과정의 '개별적인 사례를 기술하는'(idiographic) 작업은 간과되고 있다. 그 결과, 한 해석자가 생애사의 첫 줄을 읽기 시작해서부터 한 사람의 삶 및 인간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까지의 역동적인 과정을 다원적으로 포착하는데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예컨대, 생애사 주인공의 정체에 대한 가정은 어떤 시점에서 무엇을 근거로 형성되며, 후속맥락에 의해 어떻게 계속 수정 또는 유지되는지, 가설간의 모순점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최종 구성된 인간상 속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 있는지, 그에 따라 생애사 저자(=주인공)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의 관점에 비추어 개별사례를 기술함으로써 해석과정을 좀 더 생생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인간이해의 문제맥락에서 조명해 보

았을 때,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이 무엇인지 토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해의 여러 측면 중, 일반화나 평가, 의미연결 등에 나타난 추론 형태로서의 해석에 주로 초점을 맞추으로써 인간이해의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생애사 주인공(=저자)이 얘기하고 있는 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나 또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꼈을 법한 감정을 실제 함께 느끼며 그의 세계에 동참하는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Varghese & Franzcp, 1988)의 측면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합의를타당화를 통하여, 공감적 이해가 해석의 실용적 가치(Frank, 1987)인 호소력(appeal) 내지는 설득력의 근거가 됨을 시사하기는 하였으나, 해석자가 생애사 주인공(=저자)의 인간성 및 삶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공감의 지표들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과정에 대한 이해 및 설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점은 바로 인지심리학의 틀내에 있는 연구자가 앞으로 확장시켜야 할 이해지평의 방향을 지시해준다.

## 참고문헌

- 김 수연 (1993). 자전적 기억: 기억연구의 새로운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2권 1호, 1-18.
- Berger, D.M. (1989). Developing the story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3(2), 248-259.
- Bouchard, M. & Guérette, L. (1991). Psychotherapy as a hermeneutical experience. *Psychotherapy*, 28(3), 385-394.
- Britton, B. K. & Pellegrini, A. D. (Eds.).(1990). *Narrative thought and narrative language*. Hillsdale: New Jersey.
- Chessick, R.D. (1990). Hermeneutics for



- psychotherapis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4(2), 256-273.
- Cohler, B.J. (1982). Personal narrative and life course. In P.B. Baltes & O.G. Brim, J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4). New York: Academic Press.
- Dörner, D., Kreuzig, H.W., Reither, F., & Stäudel, Th. (1983). *Lohhausen: Vom Umgang mit Unbestimmtheit und Komplexität*. Bern: Hans Huber.
- Ericsson, K.A. & Simon, H.A. (1984). *Protocol analysis: Verbal reports as data*. Cambridge, MA: MIT Press.
- Fisseni, H.-J. (1987). Erträge biographischer Forschung in der Persönlichkeitspsychologie. In G. Jüttemann & H. Thomae (Eds.), *Biographie und Psychologie*. Berlin: Springer.
- Frank, J.D. (1987). Psychotherapy, Rhetoric, and Hermeneutic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research. *Psychotherapy*, 24(3), 293-302.
- Gergen, K. J. (1988). If persons are texts. In S. B. Messer, L.A. Sass & R.L. Woolfolk (Eds.), *Hermeneutics and psychological theory: Interpretive perspectives on personality, psychotherapy, and psychopathology*.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 Gergen, K.J. & Gergen, M.M. (1988). Narrative and the self as relationship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Social psychological studies of self*. New York: Plenum Press.
- Groeben, N. (1986). Handeln, Tun, Verhalten: Als Einheiten einer verstehend-erklärenden Psychologie. Tübingen: Francke.
- Groeben, N., Wahl, D., Schlee, J., & Scheele, B. (1988). *Forschungsprogramm Subjektive Theorien: Einführung in die Psychologie des reflexiven Subjektmodell*. Tübingen: Francke Verlag.
- Hermans, H.J.M. (1992). Telling and retelling one's self-narrative: A contextual approach to life-sp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35, 361-375.
- Johnson, N.S. & Mandler, J.M. (1980). A tale of two structures: Underlying and surface forms in stories. *Poetics*, 9, 51-86.
- Jüttemann, G. & Thomae, H. (Eds.). (1987). *Biographie und Psychologie*. Berlin: Springer.
- Kemper, S., Rash, S., Kynette, D., & Suzanne, N. (1990). Telling stories: The structures of Adults' narratives. *Europea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2(3), 205-228.
- Kruse, A. (1987). Biographische Methode und Exploration. In G. Jüttemann & H. Thomae (Eds.), *Biographie und Psychologie*. Berlin: Springer.
- Lynda Malm, R.N. (1993). The eclipse of meaning in cognitive psychology: Implications for humanistic psycholog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3(1), 67-87.
- McAdams, D.P. (1985). The "imago": A key narrative component of identity. In P. Shaver (Ed.), *Self, Situation, and Social Behavior*. Beverly Hills: Sage.
- McAdams, D.P. (1988). Biography, narrative, and lives: An introd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56, 1-18.
- Mertens, W. (1990).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tische Therapie: Band 1*. Stuttgart: Kohlhammer.
- Palmer, R.E. (1969). *Hermeneutics:*

-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이 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2).
- Peterson, C. & McCabe, A. (1983).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Three ways of looking at a child's narrative.* New York: Plenum Press.
- Rehbein, J. (1982). Biographisches Erzählen. In E. Lämmert (Ed.), *Erzählforschung.* Stuttgart: Metzler.
- Rennie, D. (1994). Storytelling in psychotherapy: The client's subjective experience. *Psychotherapy, 31*(2), 234-243.
- Romanyshyn, D.R. & Whalen, B.J. (1989). Psychology and the attitude of science. In R.S. Valle & S. Hall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Exploring the breadth of human experience.* New York: Plenum Press.
- Rumelhart, D. (1975). Notes on a schema for stories. In D. Bobrow & A. Collins(Eds.), *Representation and understanding: Studies in cognitive science.* New York: Academic Press.
- Russell, R.L. (1991). Narrative in views of humanity, science, and action: Lessons for cognitive therapy.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5*(4), 241-256.
- Sarbin, T.R. (1986). The narrative as a root metaphor for psychology. In T.R. Sarbin (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 Sarbin, T.R. (1986). (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 Scheele, B. & Groeben, N. (1988). *Dialog-*
- Konsens-Methoden zur Rekonstruktion Subjektiver Theorien.* Tübingen: Franck.
- Van-den Broek, P & Thurlow, R. (1991). The role and structure of personal narrative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5*(4), 257-274.
- Van Dijk, T.A. (1980). *Macrostructures: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global structures in discourse, interaction and cognition.* Hillsdale: Erlbaum.
- Van Dijk, T.A. (1985). Semantic discourse analysis. In T.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2: Dimensions of discourse.* London: Academic Press.
- Varghese, F.T. & Franzcp, M. (1988), The phenomenology of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2*(3), 389-403.
- Weidle, R. & Wagner, A.C. (1982). Die Methode des lauten Denkens. In G. L. Huber & H. Mandl (Eds.), *Verbale Daten: Eine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und methoden der Erhebung und Auswertung.* Weinheim: Beltz.
- Woolfolk, R.L., Sass, L.A., & Messer, S.B. (1988). Introduction to hermeneutics. In S.B. Messer et al. (Eds.), *Hermeneutics and psychological theory: Interpretive perspectives on personality, psychotherapy, and psychopathology.*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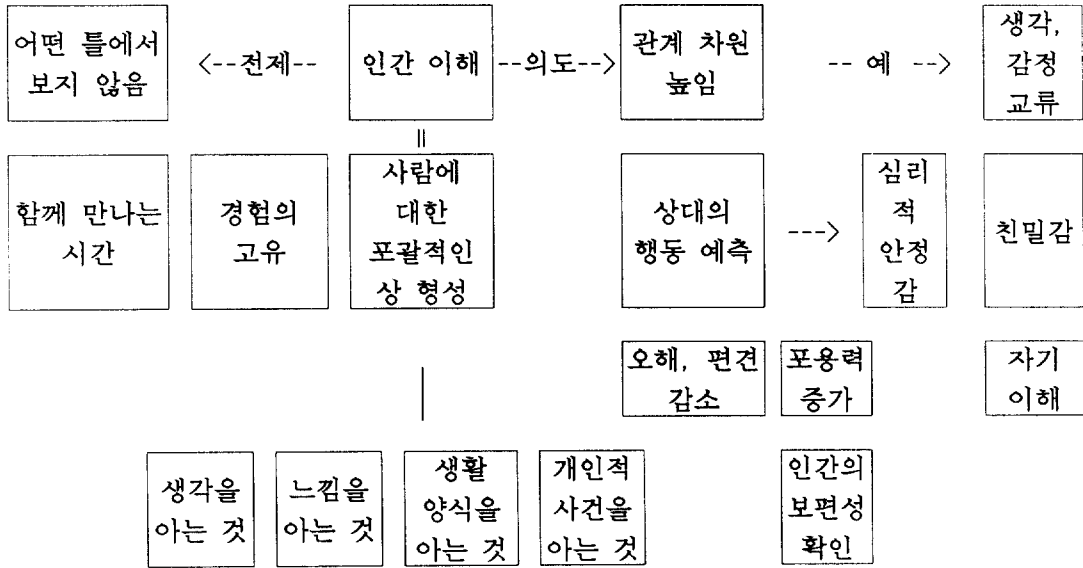
## Empirical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life story

Man-Young Lee      Soo-You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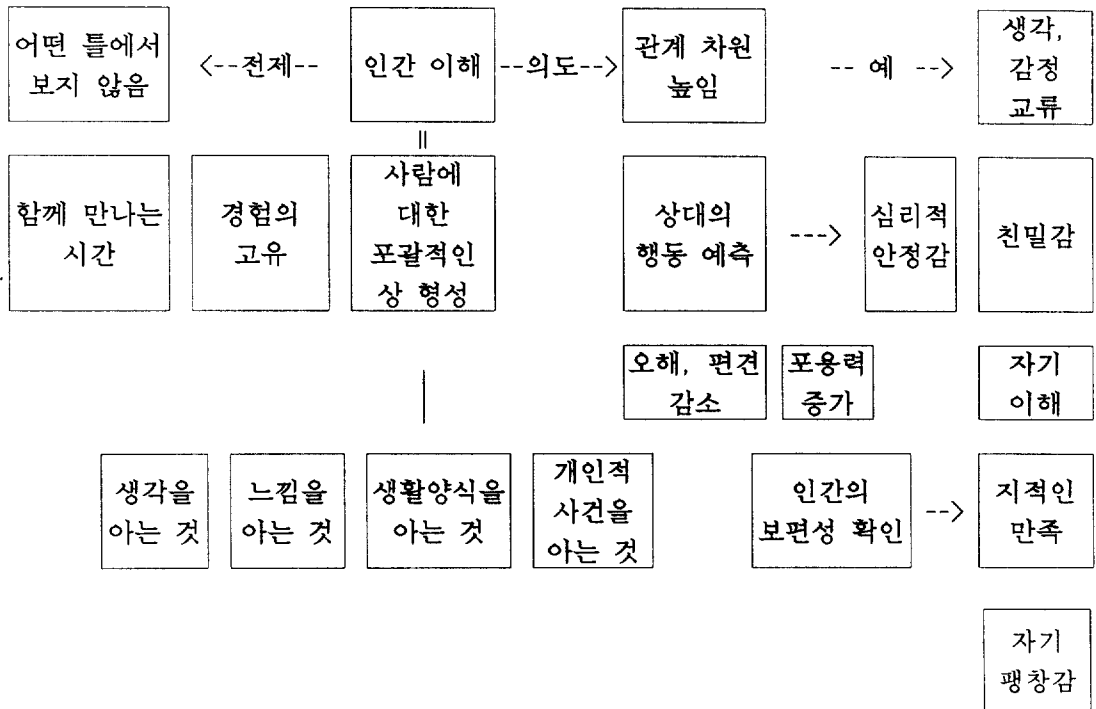
Korea University

The interpretation of life story is viewed as a process of inferencing the identity of a person via constructing the thematic structure of life story. From this viewpoint the analysis of interpretation protocols focused on the following aspects: (1)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ers' theoretical perspectives of person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ve constructs used for inferencing the identity; (2) macrostrategy used for theme construction while reading a life story; (3) interpretation patterns in terms of multiplicity of constructed themes and (4) their consensual validation on the basis of storywriter's(= main character of life story) response; (5) the horizons of understanding to be uncovered in the frustrated response of interpreters to the ambiguous life story. In conclusion, the researchers' horizon of understanding inherent in the interpretation on the empirical data is reflected and the contributions and the limits of this study to person understanding are discussed.

부록 1. 해석자의 인간이해에 대한 주관적 이론(연구자의 요약)



부록 2. 대화에 의해 수정 및 재구성된 주관적 이론



### 부록 3: 생애사텍스트 A의 주제구조

생애사텍스트 A의 제 1 수준과 2 수준에 속하는 문장/절을 중심으로 그 주제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아정체

#### 생애사 주제 (인생의 목표 및 자아이상)

현재의 이념적 배경      과거의 핵사건 및 전환점      미래계획 구상  
및 주관적 해석체계

평가      이야기 줄거리      결어

- 나만의 가치관 고수 및 정당성에 대한 확신
  - 가족에 대한 책임감
  - 기쁨과 슬픔의 감정절제를 통한 난관극복의 신조
  - 산인한 경쟁의 생활
  - 힘들고 짜증나는 하루하루
- :
1. 굴곡: 어머니의 타계

배경: 막내딸로 귀여움만 받던 완벽한 유년기; 어머니는 편찮으셨으나 언니와 아버지의 자상한 보살핌으로 불편을 못 느낌.

발단사건: 어머니의 타계에 그 당시 슬픔을 못 느낀 것이 지금도 한이 된다.

결말: 또래아이들과 달라짐.

#### 2. 굴곡: 무용의 재도전 및 대학불합격

배경: 성적부진에 시달림. 허약함으로 무용에 대한 꿈이 잊혀져감.

발단사건: 무용선생님의 칭찬과 권유로 무용에 재도전하는 용기를 얻음.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의 언쟁으로 무용부 가입.

꿈과는 달리 힘에 벅찼으나 자존심때문에 포기 못함.

결말: 대입 불합격. 담담하게 재수 결심.

평가: 무용이란 열심뿐만아니라 혼과 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깨달음.

#### 3. 굴곡: 재수시절

배경: 뻣뻣한 일정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다 친구문제로 인한 내적인 어려움.

발단사건: 재수생들과 어울려서 물려다니지 않기로 결심.

평소에 정에 약하나, 대학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참음.

결말: 외로움 속에서 자신감 및 우월감 증대.

평가: 잊을 수 없는 시절.

#### 4. 굴곡: 합격의 감격

배경: 말하면 뭔가 쉰 듯한 불길한 예감으로 입도 병긋 안하면서 발표날을 기다림. 불합격의 경우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목욕재계.

발단사건: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던 순간 터져 나오는 통곡을 막으며 피어나옴.

결말: 재수시절 유일한 친구에게 달려 감. 친구는 자신의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나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으며 함께 합격자 명단을 또 보러 가자고 제안.

#### 5. 굴곡: 대학생활

배경: 감당하기 힘든 여유의 생활 속에서 낭비와 소모의 시간을 보냄.

발단사건: 외국공연에 유일한 학생대표로 뽑힘.

결말: 친구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연습으로 기쁨을 못 느낌.

## 부록 4: 생애사 텍스트 B의 주제구조

생애사 텍스트 B의 경우, 제 1수준과 제 2 수준의 중요도를 지닌 문장/절을 중심으로 그 주제구조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아정체

#### 생애사 주제 (인생의 목표 및 자아이상)

현재의 이념적 배경 및 주관적 해석체계      과거의 핵심적 사건 및 전환점      미래계획 구상

평 가	이야기 줄거리	결 어
:	:	:
:	:	:
- 이세는 내게 뭔가 와 닿지 않는다.	- 유년시절 첫 기억 및 오랜 투병 생활	- 남자가 된다는 것은 꿈을 잃어 가는 것일까
- 어리지만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 국교시절: 내성적이던 시절 - 중 1 시절: 학생회 불참 - 중 2 시절: 짧은 처녀선생님 - 고교시절: 난상토론과 축구시합 - 대학시절: 불만의 시절	
	:	
	:	
	1. 유년시절 첫 기억: 개에 물릴 뻔한 사건	
발단사건:	친구가 개를 짹적거리려 화나게 하고는 자기만 도망감. 나는 엉겁결에 개에 물릴 뻔함.	
결말:	물리기 직전 아버지에 의해 구출되었으나 곧 기절함.	
	2. 유년시절 병원에서의 오랜 투병생활	
사건:	피를 토하던 환자를 본 일, 주사를 피하며 도망다니던 일, 몇달만에 맛있게 밥을 먹던 일. 따뜻한 병원 들에서 놀던 일.	
	3. 국교시절: 내성적이던 시절	
배경:	1학년 성적이 밑바닥이라 부끄러웠던 일. 2학년때는 방에 틀어 박혀 책만 읽음. 상위권 성적유지.	
발단사건:	집이 가난해짐	
결말:	평범한 아이들과 동질감 느껴 편하지만, 좋은 집안의 우수한 아이들과도 잘 어울림.	
평가:	어느 집단과도 어울릴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내성적이 되어 감.	
	4. 중 1 시절: 학생회 불참	
배경:	가난, 저조한 입학성적, 올바른 교육에 관심없는 담임선생님.	
발단사건:	학생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됨.	
결말:	성적에 관심 없어짐. 잘해도 보상이 없었음.	
	5. 중 2 시절: 짧은 처녀선생님	
발단사건 1:	짧은 처녀선생님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느끼면서 최대의 행복을 누림. 다른 여학생님들의 관심도 받으며 부장직을 맡는 등 학교생활에 열심.	
결말 1:	친구들의 질투로 갈등 빚어짐. 나는 독단과 무관심으로 대처.	
발단사건 2:	나에게 처벌받던 아이와 실랑이를 벌임.	
결말 2:	"네가 뭐데?"라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꼭두각시라는 회의감에 빠지면서 학급의 일에 소극적이 됨.	
평가:	통제받는 자의 입장을 고려하게 됨	

6. 고교시절: 난상토론과 축구시합

배경: 학교에서 밥을 세우며 난상토론을 벌임. 매일 밤 늦게 신문을 한두시간 뒤  
적임. 토요일 방과후 축구시합을 끝내고 중국집가는 즐거움.  
발단사건: 입시전날 축구시합으로 발목을 다쳤으나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함.

7. 대학시절: 불만의 시절

배경: 강요되는 마스사상, 무시당하는 나의 민족주의적 관심, 외국의 이론으로  
뒤덮인 강의 등에 대한 불만. 불만타개를 위해 문학동아리에 가입.  
사건발단: 성폭행 당할 뻔한 여학우를 구해주었으나, 며칠 후 만났을 때 나를 외면함.  
결말: 동아리를 탈퇴함  
평가: 순결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 충격적이다.